

“중동 모랫바람 뚫고 월드컵 최종예선 직행한다”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4차전 슈틸리케호 오늘밤 쿠웨이트 원정

나란히 3승, 골득실 앞선 한국 선두 역대 원정 2승2무2패... 후반이 변수

■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예선 현재 순위

국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대한민국	3	0	0	13	9
쿠웨이트	3	0	0	-12	9
레바논	1	0	2	-2	3
미얀마	0	1	2	-11	1
라오스	0	1	2	-12	1

한국 축구가 8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직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분수령을 넘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밤 11시55분(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홈팀 쿠웨이트와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조별리그 4차전 경기를 갖는다.

조 1.2위간의 맞대결인 이날 경기는 8개조 1위에게만 주어지는 최종예선 직행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다. 조 2위는 다른 조와 성적을 비교해 진출한다.

한국은 G조에서 3승으로 조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한국은 1~3차전에서 미얀마, 라오스, 레바논을 차례로 격파했다. 쿠웨이트도 역시 3승으로, 골득실차에서 밀려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앞으로 남은 4경기 중 3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돼 최종예선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10승4무8패로 쿠웨이트에 우위에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2승2무2패로 팽팽해 선불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슈틸리케호는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를 맞아 남태희(레쿠아)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열린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2011년 9월 열린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한국은 박주영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후반 동점을 허용해 비겼다. 손흥민(토트넘)과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의 부상으로 21명으로 꾸러진 대표팀은 지난 5일 결전지인 쿠웨이트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쿠웨이트와 원정경기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7일 오전(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의 사바 알-살렘 스타디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기에 앞서 슈틸리케 감독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현지시간)에는 첫 현지 적응 훈련을 가지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었다.

이날 오후 쿠웨이트시티의 사바 알 살렘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훈련은 가볍게 몸을 푸는 것으로 시작했다. 오후 6시가 넘었음에도 벌써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지속됐지만, 선수들은 쿠웨이트 전의 필승을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달 레바논 전 이후 한 달여만에 다시 소집되는 터라 대표팀은 서로 어색함없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다.

대표팀은 가볍게 운동장을 뛰 뒤 몸을 풀고 가볍게 패스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3개조로 나눠 축구 등을 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기성용(스완지시티)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

크) 등 지난 주말 소속팀에서 풀타임으로 뛰던 선수들은 회복 훈련에 집중했다. 회복이 필요없는 나머지 선수들은 훈련장의 반을 사용하면서 7명씩 10분간 연습 경기를 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대표팀은 7일 오후에도 한 차례 더 훈련을 가두고 쿠웨이트전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파울러, 사인해줘”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미국팀의 리키 파울러가 연습을 마친 뒤 갤러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지던트컵 양팀 선수단 '같은 고민'

상당수가 첫 출전...경험 부족 어쩌나

“경험 부족을 극복하라.”

8일부터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양팀 선수단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12명의 선수 상당수가 젊고, 따라서 프레지던트컵같은 특급 대륙 대항전 출전 경험이 적다는 점이다.

해마다 라이더컵과 프레지던트컵을 번갈아 치르는 덕에 대륙 대항전 출전 기회가 많은 미국팀에서도 리키 파울러(27), J.B. 홉스(33), 크리스 커크(30), 패트릭 리드(25), 지미 워커(36) 등 5명이 프레지던트컵 치러 출전했다. 에이스 조던 스피스(23), 더스틴 존슨(31), 버바 왓슨(37)은 두번째 출전이다. 네 번째 출전하는 잭 존슨(41)과 두 차례 출전 경험이 있는 빌 하스(33), 맷 쿠차(37)가 그나마 경험이 쌓인 편이다.

특히 스피스, 존슨, 왓슨, 파울러, 리드, 워커 등 첫 출전이거나 두 번째 출전하는 선수가 팀 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은 제이 하스 단장의 고민거리다. 프레지던트컵에 10년 모두 출전했고, 라이더컵에도 10번이나 출전한 백전노장 필 미켈슨(45)을 추천 선수로 낙점한 것도 풍부한 경험을 팀 전체에 공유하려는 하스 단장의 노림수다.

그래도 올해 투어를 지배한 젊은 선수 위주의 팀 구성으로 ‘경험 부족’은 하스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그러나 미국팀은 라이더컵이라는 또 다른 무대가 있어 대륙 대항전을 한 번도 뛰어 보지 못한 선수는 커크 한 명 뿐이지만 인터내셔널팀의 경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12명 가운데 처녀 출전 선수는 5명이라는 점은 미국팀과 같다. 하지만 첫 출전인 배상문(29), 스티븐 보디치(32), 통짜이 자이디(46·태국), 아니르반 라히리(28·인도), 대니 리(25·뉴질랜드) 등 이들 4명은 아예 대륙 대항전 자체가 처음이다.

인터내셔널팀에서 프레지던트컵 출전 경험이 있다는 선수들도 여러 차례 출전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은 아니다. 마이크 레시먼(32·호주), 브랜든 그레이스(27), 루이스 우스트하겐(33·이상 남아공), 마쓰야마 히데키(23·일본) 등 4명은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다. 6차례 출전한 애덤 스콧(35·호주)이 가장 출전 경험이 많지만 두 번 이상 출전해본 선수가 스콧 말고는 각각 세 차례 출전하는 제이슨 데이(28·호주), 찰 슈워젤(31·남아공) 뿐이다.

닉 프라이스 단장은 “어니 엘스가 없다는 게 가장 뼈아프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엘스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8차례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한 인터내셔널팀의 기둥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아 단장 추천을 받기에도 어려웠다. 양팀 모두 경험 부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패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PGA 11승 스콧 vs 장타자 왓슨 대니 리, 세계1위 스피스와 격돌



프레지던트컵 포섬 경기 대진 발표

골프대항전 프레지던트컵 첫날 포섬 경기의 첫 대결은 애덤 스콧(호주)-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인터내셔널팀)와 버바 왓슨·J.B. 홉스(미국팀)와의 대결로 결정됐다.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은 7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조별예선에서 8일 열리는 5개의 포섬 경기 대진을 발표했다.

포섬 경기는 같은 팀의 두 선수가 번갈아 공을 쳐 스코어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선수들간 호흡이 중요하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인터내셔널팀이 약세인 경기 방식이기도 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 우선권을 가진 대진 발표에서 미국팀의 제이 하스 단장은 첫 조 선수 발표권을 인터내셔널팀에 넘겼다.

인터내셔널팀의 닉 프라이스 단장은 2013년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1승을 올린 스콧과 일본의 영건 마쓰야마를 같은 조에 내세웠다. /연합뉴스

미국팀은 장타자인 왓슨과 홉스를 묶어 인터내셔널팀을 견제했다.

두 번째 조는 루이 우스트하겐-브랜든 그레이스(이상 남아공·인터내셔널팀)와 맷 쿠차-패트릭 리드(미국팀)조가 맞붙는다. 이어 아니르반 라히리(인도)-통짜이 자이디(태국)와 리키 파울러-지미 워커, 제이슨 데이(호주)-스티븐 보디치(호주)와 필 미켈슨-잭 존슨, 대니 리(뉴질랜드)-마크 레시먼(호주)과 조던 스피스-더스틴 존슨이 잇따라 대결한다.

인터내셔널팀의 프라이스 단장은 호흡이 중요한 포섬 경기인 만큼 같은 나라 또는 같은 아시아권 선수들을 같은 조로 편성했다. 기대를 모았던 세계랭킹 1위 스피스와 2위 데이의 포섬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뉴질랜드 교포인 대니 리는 레시먼과 짝을 이뤄 미국의 에이스 스피스와 장타자 존슨과 첫날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단장 추천으로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한 배상문은 찰 슈워젤(남아공)과 첫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최종주 인터내셔널팀 수석부단장은 “배상문과 슈워젤이 포섬 파트너였는데 슈워젤이 어제부터 구토 증세를 보여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팀에는 빌 하스와 크리스 커크가 첫날 경기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열기



제9회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이 7일 서구 광주장애인체육회관에서 열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풍선 탭' 쌓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파크골프, 탁구 등의 종목에 선수와 임원 22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5 프레지던트컵 첫날 조별예선

인터내셔널팀	VS	미국팀
1 에델 스콧(35) 182.9 / 81.6 / 호주 미쓰야마 히데키(23) 180.3 / 77.1 / 일본	VS	버바 왓슨(36) 190.5 / 81.6 J.B. 홉스(33) 180.3 / 86.2
2 루이 우스트하겐(32) 177.8 / 81.6 / 남아공 브랜든 그레이스(27) 177.8 / 77.6 / 남아공	VS	맷 쿠차(37) 193.0 / 88.5 패트릭 리드(25) 182.9 / 90.7
3 아니르반 라히리(28) 175.3 / 74.8 / 인도 통짜이 자이디(45) 175.3 / 72.6 / 태국	VS	지미 워커(36) 188.0 / 81.8 리키 파울러(26) 175.3 / 68.0
4 제이슨 데이(27) 182.9 / 88.5 / 호주 스티븐 보디치(32) 182.9 / 90.7 / 호주	VS	잭 존슨(39) 180.3 / 74.4 필 미켈슨(45) 190.5 / 90.7
5 대니 리(25) 180.3 / 79.4 / 뉴질랜드 마크 레시먼(31) 188.0 / 90.7 / 호주	VS	조던 스피스(22) 185.4cm / 83.9kg 더스틴 존슨(31) 193.0 / 86.2

배상문 - 찰 슈워젤 첫날 제외 선수 빌 하스 - 크리스 커크

자료: presidentcup.com /연합뉴스